

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(출근) 중지

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

-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
※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

□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 등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

-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*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10일(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) 간 자가격리 준수
*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,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 등
-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등교·출근 가능
-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,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

◆ (참고) 수동감시 요건 및 생활수칙

- (수동감시 요건)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,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,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·이용자·종사자가 아니며, ④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, 수동감시 실시

※ 특별방역대책 추가방역조치(12.3.)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

- (자가 모니터링) 수동감시 기간 중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
- (외출자제)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출퇴근,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을 자제하며,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 접촉 최소화
- (수동감시 중 검사) 접촉자 분류 직후, 6~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수동감시 유지
※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
- (수동감시 종료)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

- 학생·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

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

- ①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-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- ④ 응급선별검사,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